

the **TRUMAN** show

〈이터널 선샤인〉 집 캐리

LIVE

지금 당신은  
진짜 인생을  
살고 있나요?

DAY 10,909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트루먼쇼**

12월 13일



롯데시네마 단독 개봉

작은 섬에서 평범한 삶을 사는 30세 보험회사원 트루먼 버뱅크 아내와 홀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한 하루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하늘에서 조명이 떨어졌다. 의아해하던 트루먼은 길을 걷다 죽은 아버지를 만나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라디오에 생중계되는 기이한 일들을 연이어 겪게 된다. 지난 30년간 일상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어딘가 수상하다고 느낀 트루먼은 모든 것이 ‘쇼’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첫사랑 ‘실비아’를 찾아 피지 섬으로 떠나기로 결심한다. 가족, 친구, 회사...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가짜인 ‘트루먼 쇼’ 과연 트루먼은 진짜 인생을 찾을 수 있을까?

Jim carry : The role of  
Truman Burbank

**Ad harrison : The  
role of Christoph**

Noah Emmuhiri :  
The role of Marlon

Laura Linney: The role of  
Meryl Burbank

Natasha McKellhorn: The role of  
Lauren/Silvia

Holland Taylor: The role of  
Truman's mother

It was amazing that it was a movie in a movie.  
It's terrible to think that the life of the main character,  
Truman, is being watched,  
but Truman thinks it's bad he didn't recognize it Still,  
it was cool to get over it yourself.  
Personally, I think it It's nine out of ten

It's nine out of ten!



I recommend. Because it's  
impressive.

I was surprised that the line  
between truth and lie was  
contradictory